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9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6월 1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대법원
콜텍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

콜텍 7년 투쟁에 잔인한 선물

대법원이 12일 콜텍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판결을 내렸다. 콜텍자본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7년간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결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정리해고의 자유를 무한히 보장해줬다. 이제 콜텍지회의 투쟁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어졌다. 이 나라의 법은 모든 정리해고는 무조건 정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노동자 현실은 처참해졌다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주 자유로워졌다. 콜텍처럼 경영상태가 탄탄한 기업도 미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래 정리해고를 해도 좋다고 한 것이다. 이제는 어떤 기업도 마음껏 정리해고를 해도 좋을 상황이다. 쌍용차처럼 굳이 회계조작까지 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필요도 없다. 덕분에 법 조문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필요없다.

콜텍은 여전히 기타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의 상표권도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국내 기타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콜텍의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내쫓겨 7년을 싸웠는데, 콜텍자본은 유유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이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콜텍 뿐 아니라 어느 기업도 노동자는 길거리로 내쫓고 원하는대로 사업을 이어가면 된다. 모든 노동자가 정리해고의 위험에 놓이게 됐다.

우리가 끝내지 않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콜텍지회의 기나긴 싸움 중에 법정투쟁만 끝난 것일 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불매운동을 비롯해 부당한 정리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싸움도 계속된다. 모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판결을 모든 노동자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 줄 날까지 콜텍지회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콜텍 박영호 사장이 무릎꿇고 사과하도록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끝까지 투쟁해서
대법원도, 콜텍자본도 반드시 무릎꿇리자!

노조파괴, 검찰은 손떼라! 법원으로 간다!

대전고등검찰청이 유성, 보쉬전장, 콘티넨탈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는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권한은 검찰만이 갖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가 있는 자라도 그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노조파괴를 자행한 사업주들이 검찰만 구워삶으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고 있듯이 검찰은 버젓이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고 있다. 검찰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노조파괴 사업장의 각종 소송을 보면 법원에서는 노조파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보쉬전장지회 정근원 전 지회장의 해고소송에서도 법원은 노조파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유성지회 소송에서도 법원은 노조파괴 혐의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 검찰이 얼마나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고개 뻣뻣이 들고 현장을 다니는 꼴을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끝까지 법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지부는 18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똘똘 뭉쳐 나간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끈끈하게 뭉쳐가고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시작된 노숙농성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700~800여명의 조합원들이 흔들림없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교섭을 하자는 의사를 전해오기도 했지만 본관 앞 분향소를 철수하라든가, 구두로 제시하던 내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의 제시안을 갖고오는 바람에 교섭이 2차례 결렬되었다. 그러다 12일 삼성이 그동안 구두로 제시하던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면서 교섭이 재개되었다. 지회는 13일 중앙확대쟁대위를 통해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6월 넘어가면서 농성 대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지회를 얕잡아봤다. 그러나 지회는 삼성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며 더 많은 조합원들이 삼성 본관에 모여 농성을 이어갔다. 하루종일 서울 도심을 누벼가며 삼성의 잔인한 노조탄압과 노동자 착취를 폭로하며 삼성을 압박했다.

다시 삼성은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식을 줄 모르는 투쟁열기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한달이 넘어가는 농성투쟁을 하느라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많이 연대하자. 무노조 경영의 상징 삼성에 민주노조 깃발을 굳건히 꽂는 순간이 다가온다.

"권리 없인, 월드컵도 없다" 월드컵 개막 반대 시위

브라질 월드컵 개막일인 12일,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 12개 이상 도시에서 월드컵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12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상파울루에서 시위는 월드컵 개막 약 2시간 전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약 1천명의 시위대는 코파카바나 피파 펜대회로부터 10km 떨어진 도심 중앙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월드컵도 없다"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 시위를 벌였다. 사람들은 개막 경기장을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했지만 현장에 주둔한 군경 특수부대의 삼엄한 경비를 통과할 수 없었다. '로보캅'처럼 중무장한 경찰은 고무총, 최루탄, 섬광탄 등의 진압 장비를 동원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약 1,000명이 "피파는 돌아가라"고 외치며 평화로운 행진 시위를 벌였다. 리우 공항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항 진입 도로를 봉쇄했으며 교사들 역시 파업에 나서 집회를 열고 도심을 행진했다. 그러나 경찰은 리우에서도 역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많은 부상자를 냈다.

월드컵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체와 조직은 내달 13일 월드컵 폐막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6.12 콜텍 대법원 1인 시위>



<6.12 콜텍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6.15 코스파지회 체육대회>


<6.15 코스파지회 체육대회>